

수출·건설 부진에 광주·전남 경제 ‘주춤’

한은, 호남권 경제동향 모니터링

2분기 제조업 생산·건설·수출 ↓
부동산업·민간소비 등도 감소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축소세

올해 2분기 광주와 전남지역 경제지표 대부분이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 등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 감소와 반도체 업황 악화로 제조업 생산이 줄고 서비스업 생산도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부진한 탓이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내 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제 동향 모니터링 결과, 올해 2분기 호남권 경기는 1분기 대비 소폭 악화됐다.

2분기 제조업 생산은 1분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이 줄었으나 자동차와 조선은 소폭 늘었다. 철강과 반도체는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석유정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정제마진이 축소된 데다 정기검사로 인해 가동률도 하락하면서 감소했다.

자동차는 대기수요를 바탕으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상황이 개선되며 소폭 증가했으며 조선도 인력 공급난이 완화되면서 소폭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1분기보다 소폭 줄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이 증가했고 도소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부동산업과 운수업은 소폭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높은 외식물가에도 불구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개최로 관광객이 유입되면서 증가했다.

도소매업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심리 회복이 지연되면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부동산업은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 운수업 역시 수출 부진 등으로 수상운송과 항공운송의 물동량 및 항공 운항편수가 줄어들면서 소폭 줄었다.

민간소비는 서비스 소비가 포함 수준을 나타냈으나 재화 소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재화 소비는 소폭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내구재는 신형 모델 출고 등으로 자동차 판매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형 가전이 줄면서 소폭 감소했다. 준내구재는 명품 소비 위축으로 고가 의류와 잡화 판매가 줄면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비내구재는 차량용 연료와 식료품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했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고가 수입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했으나 대형마트는 증가하는 등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투자는 1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민간부문은 공사단가 상승, 미분양주택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연됐던 현장들이 일부 착공됨에 따라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예산집행액이 줄어들며 감소했다.

수출(일평균) 역시 1분기보다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 석유제품, 철강, 선박 및 반도체는 감소했고, 자동차는 증가했다.

4~5월 중 취업자수(월평균)는 전년동기 대비 4만명 증가해 1분기 6만1000명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농림어업

은 감소로 전환했고 서비스업 및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3%로 1분기(4.9%)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비스 물가는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유지했다. 반면 상품가격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류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며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4~5월 중 주택매매가격(월평균)은 전분기말월 대비 0.33% 하락하면서 전분기(-0.66%)에 비해 하락폭이 축소됐다. 이는 특례보증자리론 등 정부의 정책 지원, 최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매수심리가 일부 회복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 전북 및 전남 모두 하락폭이 축소됐다. 4~5월 중 전세가격(월평균)도 전분기말월 대비 0.37% 하락해 전분기(-0.71%)보다 하락폭이 축소됐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기아-스타벅스, ‘EV9’ 친환경 콜라보 굿즈 선봬

보스틴백·파우치·리유저블 컵 등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 등 소재로

기아는 ‘The Kia EV9’의 출시를 기념해 ‘굿즈 맛집’으로 불리는 스타벅스와 협업으로 EV9의 방향성이 담긴 다양한 브랜드 콜라보 굿즈(사진)를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자동차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콜라보는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두 브랜드 간 만남이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굿즈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아의 의지가 담긴 EV9의 방향성에 맞춰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여정을 위한 제품’으로 제작됐다.

굿즈는 보스틴백, 파우치, 리유저블 컵, 컵 슬리브, EV9 모형 빨대 등 총 5가지로, 보스틴백과 파우치에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rPET) 원단을 사용하고 컵 슬리브에 실제 EV9의 내장재인 비건 가죽과 동일한 자재로 제작하는 등 친환경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디자인적으로는 EV9의 디지털 패턴 라इट팅 그릴을 디자인 포인트로 형상화하고, EV9과 스타벅스의 로고를 활용해 양사의 아이덴티티를 세련되게 반영했다.

굿즈 색상도 아이보리 실버, 아이스버



그 그린, 오선블루 등 EV9의 외장 컬러를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의 그린 컬러를 포인트로 활용해 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를 디자인에도 녹여냈다.

보스틴백의 경우 EV9의 스위블 시트에서 영감을 받아 내부를 2~6분할 수납이 가능한 칸막이로 구성해 실용성을 높였다.

이번 브랜드 콜라보 굿즈는 EV9 사전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 증정 중이며, ‘기아 EV 성수 언플러그드 그라운드’를 비롯해 기아 인스타그램 등에서 콜라보 굿즈를 증정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EV9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에 기반한 두 번째 모델로 국내 최초의 3열 대형 전동화 SUV다. 기아는 EV9 기본 모델을 지난 19일 출시하고 순차적으로 고객에게 인도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마찬호 제23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취임

지역건설산업 경영여건 개선
중소건설업체 지원 등 노력

마찬호(사진) 제23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이 26일 공식 취임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이날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건설협회 관련 단체장·전남도회 대표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후식 제22대 회장 이임식과 마찬가지로 23대 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임 마 회장은 취임사에서 “선대 회장님과 선배 건설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을 이어받아 지역건설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



이겠다”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SOC관련 예산 확대 건의 및 대형공사 분할발주, 지역의무공 동도급 등을 적극 활용해 지역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부족과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입찰제도 보완,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 시장경쟁력위에 반하는 하도급, 시공, 노동, 안전 환경분야 등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마 회장은 또 “회원사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 해야만 현재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회원사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마 회장은 1994년 건설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20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11년 남양건설(주)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2019년부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또 건설공제조합 대의원,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광주 지역협의회 부회장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부친인 마형렬 남양건설(주)회장에 이어 부자(父子) 최초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에 오르는 진기록을 남겼다. 마형렬 회장은 제13대~16대(1991년 7월~2002년 3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최권범 기자

광주경총,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를 아우르며 ‘미래자동차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광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경영자총협회도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총은 “하남·소촌·평동·점단 등 광주 전역에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조성돼

있고, 완성차 업체는 물론 부품기업들 또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광주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아차와 광주글로벌모터스 등으로 연간 72만대 규모의 완성차 공장 2곳은 보유한 지역을 광주가 유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가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과 공급망 확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차 소부장 연구개발(R&D) 기반 구축, 기업 지원, 인력 양성, 세액 공제, 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우리 지역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되면 빛그린 산단과 신규 국가산단에 국제적 전기차, 미래차 생산단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지혜 기자

노동 칼럼

분산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A씨는 월 210만원을 받으면서 디저트 카페에서 주 5일 일하고 있다.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나와서 일하고 있으며 동료 한 명과 함께 디저트를 만드는 일을 한다. A씨가 만든 디저트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세 곳의 카페로 이동돼 판매하고 있다. A씨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카페에 기본적인 없지만, 각각 카페에는 하루 두 명의 직원이 따로 채용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A씨의 사업주는 법인을 만들어 디저트 제조업 1곳과 카페 3곳을 모두 해당 법인의 소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경우 A씨가 일하는 곳은 상시근로자 수는 몇 명으로 계산해야 할까?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때, 이것을 각각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지,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할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을 기준으로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직장내 괴롭힘, 연차 휴가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적용 여부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본인의 근로조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A씨가 일하고 있는 사업장처럼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된 경우엔 행정해석은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기준이 있는데, 장소 및 독립성이다.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돼 있고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 등이 서로 분리돼 독자적으로 사업 경영이 이뤄진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

반대로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있지 않고 장소적으로 분리돼 있더라도,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고 하나의 사업으로 독립



이연주
공인노무사

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기도 하다.

추가로 행정해석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을 받거나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다.

A씨 사업장은 하나의 법인으로 구성돼 있기는 하지만, 3곳의 카페와 디저트 제조업은 장소도 다르고, 산업의 종류도

다르다. 또 각자 노무관리와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A씨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공휴일에 일한다 하더라도 사업주와 별도 약정이 있지 않다면 50%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업주가 하나의 사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 명의 사업주가 운영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할 수 있다.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